



은 磨滅이 甚하나
左手는 與願印、
右手는 施無畏의
通印인 듯하다.
무릎밑은 埋沒되
어 座台의 有無
를 알 수 없고 背
光은 頭光만 表
示되어 雄健한 火
炎文을 寶珠形으
로 나타냈다. 通
肩한 法衣는 두
손을 거쳐 무릎
을 덮었고 胸前에
는 袈衣의 帶紐
가 보인다. 相容이

溫和한 가운데도 全體에서 端嚴한 氣風을 느끼게 한다. 衣紋은 똑똑치
않으나 寫實的인 表現을 짐작할 수 있다.

右脇侍菩薩은 正面 直立하였으며 머리에는 三面花冠을 썼고 前面에 무
슨 彫刻이 있는 듯하나 識別할 수 없다. 面相은 亦是 길고 兩 眼孔이 파
진 것이 보일 뿐 細部를 觀察하기 힘들만큼 磨滅되었으나 寶髮이 길게 느
러져 어깨를 덮은 것이 보인다. 두 손은 가슴 앞에 모아서 合掌하였고,
두 팔을 거쳐 내린 天衣가 길게 느러졌다. 몸에는 莊嚴具가 거의 없는
듯 목걸이와 팔지가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무릎 以下는 埋沒되어 褶襞
이나 台座를 볼 수 없음은 遺憾이다. 머리에는 本尊과 同一한 手法의 頭
光이 있다.

左脇侍菩薩은 亦是 正面 直立的의 像으로 같은 形式의 頭光이 있고 다
른 二像보다는 豐頰한 面相이다. 머리에는 높은 三面花冠을 쓰고 있으
나 前面이 破損되었다. 兩 眼孔은 亦是 길이 파졌으나 떨어져진 鼻端아래

로 所謂 仰月形 口唇이 보인다. 두 어깨 위에는 寶髮이 길게 늘어져서 끝
은 花瓣 모양을 이루었다. 比較的 두꺼운 天衣가 두 어깨에서부터 두 팔
을 거쳐 腹前에서 U字形으로 늘어졌고 兩端은 옆으로 길게 흘렀다. 右
手는 側面에 느러뜨렸고 左手는 臍前에서 무엇인가 잡고 있는 듯하다.
몸에는 아무 裝身具가 없어 매우 素朴한 感을 준다. 身部에 比하여 比較
의 큰 머리나 좁은 어깨에서 古拙한 風을 느낄 수 있다.

岩石 四面에 佛像을 彫刻하는 例는 慶州 掘佛寺址 四面佛石을 爲始하
여 數例가 있고, 三尊의 形式을 坐像인 本尊에 對하여 脇侍補處의 菩薩
을 立像으로 表現하는 例는 흔히 있는 形式이다. 다만 지금 그 尊名을
定하기 어려우니 本尊이나 脇侍菩薩에서 尊名을 定할만한 特徵을 發見
할 수 없는 까닭이다.

以上 三尊은 그 造像形式이나 三尊의 肢體 或은 手印이 同郡內에 所
在한 可興里 磨崖 三尊像과 恰似하다. 그러나 細部의 彫刻手法이나 모
델링은 그보다 古態를 띠었으며 特別히 頭光形式은 그와 同時에 論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三尊佛像의 造成年代를 七世紀以下로
떨어뜨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埋沒된 部分의 發掘과 處處에 附着
된 胡粉을 除去하면 좀 더 詳細한 部分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高麗銀入絲青銅佛器의 新例

黃 壽 永

金屬器에 入絲(象嵌)한 遺品은 高麗의 淨瓶 香爐 등에서 보는 바인데,
이곳에 紹介하려는 新例는 일찌기 보지 못한 것으로 銀入絲의 手法이 優
雅할 뿐 아니라 器體周圍에 詩句가 入絲되고 器台에는 記銘이 있어 所屬
寺觀을 推定케 함이 있다.

二

形態는 大碗形 ①으로서 青銅製인 바, 넓은 圓形底部에는 器體에 比하
여 低小한 금이 달려 있다. 烏銅이라고 부르는 黑色을 나타내었는데, 身

台의 結構手法과 比率은 高麗古墳出土의 無紋의 盒碗器와도 類似하다. 口緣下에 龍形의 兩耳가 달려 있으나 後補된 것으로 보인다.

三

銀入絲는 細線을 주로 하여 器體를 裝飾하였는데 胴體 四處에 紋樣帶로서 圓圈을 만들고 그 안에는 五言詩句를 各行 行書體로서 入絲하였다. 다음에 이같은 圓帶間地에는 寶相花紋을 넣었으며 每間마다 童子一像이 自由스러운 姿勢로서 즐거를 잡고 있다. 口緣에는 唐草紋이 周回하였고 下回에는 太·細兩線으로서 輪廓을 마련한 十八複瓣의 蓮花紋이 入絲되어 있는데 各瓣內에는 花紋이 加飾되었다. 以上과 같은 入絲紋樣 및 그 配案은 同代의 靑銅香爐에서 같은 類例를 指摘할 수 있으니 爐身 四處의 圓圈內에 梵字를 넣고 間地에 花紋帶를 두르고 다시 그 밑으로 仰蓮을 配置하였다. 同一한 手法은 또 高麗靑瓷의 器皿에서도 黑白入絲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비록 材料와 造成의 手法은 다르다 하더라도 同代의 作品에서 이와같이 紋樣과 入絲의 同一함을 指摘할 수 있다. 器體에 詩句를 記刻한 것도 高麗陶磁에서 그 類例를 볼 수 있는데 此例에서는 다음과 같이 判讀되었다.

山冷雲藏場	↓風高月滿亭	世情着冷煖	伊家渾不管
這廻如寫我	不用使丹青	休惡古井深	自是繩索短
曾到不曾到	且喫一盃茶	善住庵中人	將來無可住
待客祇如此	冷淡是僧家	只這無住心	便是安身處

四

台座는 앞은 銅板을 들리고 一段의 下緣을 만들었을 뿐 入絲紋樣은 없고 다만 小諸字로서 다음과 같은 記錄이 向左一行으로 陰刻되어 있다.

「禪源上重柒斤貳兩」②

禪源은 寺名을 가르킨 것으로 高麗의 江華移都 以後에 있어서 史上에 屢見하는 江華島의 禪源寺(社)로 推定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 遺品은 同寺의 佛器로서 造成된 것으로 보아도 可할 것이므로 同寺가 創建된

高麗 高宗代 以後인 西紀十三、四世紀頃으로 잡고자 한다. 이같은 年代 推定은 同器의 入絲手法과 그 紋樣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五

此品은 現地 日本 東京에서 個人의 所藏인 바 그 傳來의 年代 ③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傳世品인 것은 틀림 없을 것이다. 日本에 傳來以後에 있어서 煎茶 또는 焚香을 위한 用途에 實用된 듯하며 兩耳도 그를 위하여 添加되었을 것이다.



- 註
- ① 佛前의 供養用으로 使用되는 「공양바리」가 이 形態와 類似하다고 한다.
 - ② 現重量은 二斤六六〇그램
 - ③ 禪源寺가 倭寇에 被侵된 記事가 高麗恭愍王 九年 閏五月 丙辰條에 보인다.